

흑등고래와 조우...찰나의 감동 담다



장남원 작 'Humpback Whale 2021'

(장남원 작가 제공)

장남원 작가, '움직이는 섬, 고래' 소재 수중사진 초대전...10월9일까지 롯데갤러리 광주점

"역시 고래는 대단하다. 그 커다란 눈이 눈을 꿈뻑거리며 나를 보고 있는데 순진해 보이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통가(TONGA)에서 돌아오는 길은 무척 멀지만 지루함을 느끼지 못했다. 마음 속 가득히 행복하고 마치 세상을 다 얻은 듯 한 기분이다. 사진이 좋고, 나쁘고는 나중 문제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보고 싶었던 눈을 물속에서 만났다는 것이다. 흑등고래를 처음엔 무서워 도망도 갔었다. 나중엔 전해져서인지 그렇게 착할 수가 없다. 아마 그들의 모습은 영원히 내 마음속에 남을 것이다."

-통가(TONGA)에서



장남원 작가

세계에서 가장 큰 포유류 고래. 그중에서도 몸길이 16m의 흑등고래의 장엄함과 모습이 담긴 사진전이 광주에서 열린다.

한국 수중사진계의 1세대 장남원 작가가 오는 10월9일까지 롯데갤러리 광주점에서 '흑등고래'를 소재로 한 수중사진 초대전을 개최한다.

'움직이는 섬, 고래 (Moving Island, Whale)'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초대전에 장 작가가 남태평양의 통가 등에서 촬영한 30여 점의 흑등고래 사진을 선보인다.

장 작가는 이 흑등고래를 단순히 거대한 생명체가 아닌 소중한 친근한 피사체로 40여년 동안 작업을 이어왔다.

사진 작업은 주로 새끼를 낳으려는 흑등고래들이 몰려드는 남태평양의 통가에서 이뤄지는데, 고래보호를 위한 통가 정부 방침으로 소음이 발생하는 공기통을 메고 잠수할 수 없기 때문에 작가는 방수카메라만 들고 바다로 뛰어 들었다.

잠수장비 없이 숨 쉴 수 있는 1-2 분 남짓. 장 작가는 수심 10m에서 새끼를 품은 채 낚신 이를 경계하는 고래에 대한 세심한 배려로 어미고래가 새끼를 감싸고 유영하는 장면이나 잠수부와 함께 등장하는 가슴 벽찬 찰나의 감동을 앵글에 담아냈다.

중앙일간지 사진기자 출신인 장 작가는 16mm 광각렌즈를 활용해 광활한 해양 세계나 흑등고

래의 장엄함을 기록해 해외 사진가들 작업과 확연히 구분되는 사진 세계를 구축했다.

또한 작품 사진 대부분이 흑백으로 비록 다채로운 색채가 주는 화려함은 없지만 흑백의 대비를 통해 고래의 몸짓과 형태에 집중하게 만든 것도 또한 그의 작품만이 주는 매력이다.

장 작가는 "목숨을 잃을 뻔한 적도 여러 번, 술한 난관과 까다로운 촬영조건을 극복하고 탄생한 고래 사진을 통해 생명의 경이로움, 그리고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세상을 꿈꾸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희중 기자

광주문화재단, 지역예술인 복지지원 실태조사

광주문화재단은 지역 예술인의 생활 여건 및 예술 활동 환경을 파악해 안정적인 예술인 복지 지원을 도모하기 위해 '2021 광주예술인 실태조사'로 '광주예술인조사_당신은 예술인입니까?'를 시행한다.

이번 조사는 광주시에 거주 혹은 활동하고 있는 예술인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예술인 기준은 현재 활동하고 있는 전문예술인을 비롯해 장

예술인과 예비예술인까지 조사대상에 포함돼 다양한 분석이 가능한 자료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실태조사는 2가지 단계로 진행된다.

1단계는 지역예술인 1천여명 현황조사와 예술인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광주예술인 라운드테이블'에 초점을 맞췄다.

현황조사는 오는 10월까지 '광주예술인조사

—당신은 예술인입니까?'라는 제목으로 진행된다.

참여는 온라인이나 광주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링크를 통해 가능하다. 이를 토대로 예술인 1천여명 현황을 모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계획이다.

2단계 조사는 1단계에서 진행된 '광주예술인조사' 및 라운드테이블 결과를 바탕으로 온라인 및 방문을 통해 이달 말부터 진행된다. 이후 12월 주요 조사 결과공개 및 정책 발굴 토론회를 위한 정책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박희중 기자

쇼팽 전주곡과 연습곡의 재발견

박종화 피아노 리사이틀 'Rediscovery'...7일 유스퀘어 문화관 금호아트홀

서울대 음악대학 교수가 들려주는 쇼팽의 정석. 누구나 쉽게 도전하지만, 누구도 쉽게 소화할 수 없는 쇼팽의 전주곡과 연습곡.

피아니스트 박종화(서울대 음악대학 교수) 7일 오후 7시30분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리사이틀 무대를 갖는다.

2019년 리사이틀 이후 2년 만의 리사이틀 프로그램으로 그가 선택한 곡은 쇼팽의 전주곡(작품번호 28)과 연습곡(작품번호 10)이다. 엄밀히 말하면 전주곡 24곡과 연습곡 12곡으로 이뤄진 이번 리사이틀은 피아노를 전공하는 학생이라면 누구나 한 번씩은 도전해봤을 정도로 연습용 또는 콩쿠르 준비용으로 자주 연주되는 곡이다.

하지만 이 곡들로만 이루어진 공연을 무대에 올리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그 이유는 누구나 쉽게 도전하지만, 누구도 쉽게 소화할 수 없는 작품이기 때문이다. 더불어 전주곡과 연습곡을 모두 합치면 36곡인데, 이 모든 곡을 집중력을 가지고 이어나가기란 쉽지 않다.

서울대 음악대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연주자이자 연구가인 박종화는 이번 리사이틀을 위해 몇 달간 쇼팽과 관련한 서적들을 읽으며 쇼팽의 전주곡과 연습곡을 가장 쇼팽답게 표현하기 위해 연구하고 연습했다.

연주자가 연주를 시작하기 전 악기의 음정을 체크하고 손가락을 풀기 위해 연주했던 '전주



피아니스트 박종화.

/봄아트프로젝트 제공

곡'과 테크닉을 연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곡했던 '연습곡'은 쇼팽으로 인해 무대 위에서 연주돼도 전혀 손색없을 정도의 독립된 예술 작품의 지위를 획득하게 된다.

특히 흥미로운 점은 24개의 조성을 모두 사용해 작곡된 전주곡 24개의 곡이 각각 독특한 인상과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박종화 역시 쇼팽의 전주곡과 연습곡을 어렸을 적부터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연주해왔지만, 이번 리사이틀에서 그가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어느덧 중견 연주자로 성장한 그가 '재발견'하게 된 쇼팽이다. 작곡가이기 이전에 한 인간으로서의 쇼팽의 삶이 어땠는지 박종화가 들려주는 전주곡과 연습곡을 만나볼 수 있다.

/박희중 기자

인류세, '예술로 상상하다'

ACC, 생태·문명 공존 모색 '지구의 기억'展...10월24일까지 복합2관

지구환경 문제를 체험하며 생태계와 문명의 공존 가능성을 모색해 보는 물입형 미디어아트 전시가 열린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이 인류세를 주제로 한 전시 '지구의 기억(REMEMBER THE EARTH)'을 오는 10월24일까지 문화창조원 복합 2관에서 개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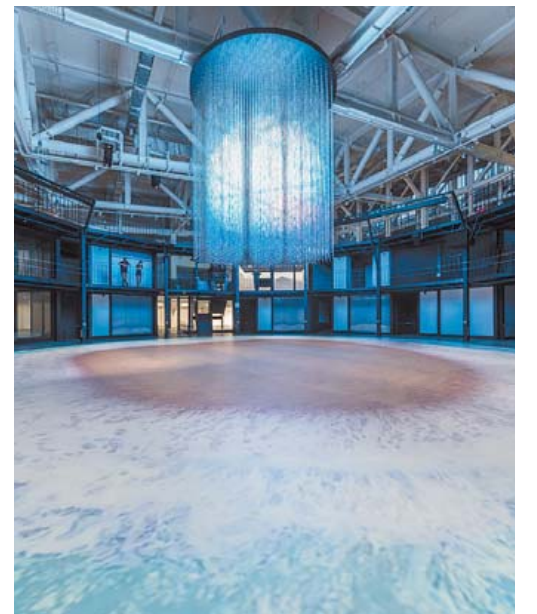
전시는 복합2관 상설원 아시아(The Circle) 원형공간에서 펼쳐지는 프로젝트 매핑과 공간을 아우르는 미디어 상들리에(LED Strip)를 통해 지구의 과거, 현재, 미래를 동시대 관점에서 바라보며 지속 가능한 인류 미래를 얘기한다.

관람객이 전시장에 들어서면 거대한 미디어 상들리에를 먼저 만난다. 상설원 2층 미디어룸 '빛의 순환'에선 터치모니터를 통해 인류의 행위에 따른 지구의 변화를 체험한다. 자연과 인간, 나아가 지구와 인류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시선을 보여주는 셈이다.

미디어아트 영상은 지구의 자연↔문명↔환경 오염을 20분마다 반복적으로 상영된다.

'공존' 또는 '무(無)의 상태를 앞둔 인류에게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한 해결방안으로 선순환의 필요성을 전달하고자 했다.

한편, 전시장 외측 공간에선 2019년 ACC_UR 레지던시 참여자가 계정권의 디자인 설치작품



'지구의 기억'전 전경.

(ACC 제공)

'大利(DAY)'와 '호광축암(呼光逐暗)'도 만날 수 있다.

이번 전시는 ACC 상설 미디어아트 체험관 조성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마련됐다. 전시 관람은 무료며 전당 홈페이지에서 전시 통합관람권을 예약해 관람할 수 있다.

/박희중 기자

추석맞이 선물 대행사

고객님의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추석맞이 행사 할인

씨알-렉스 ~~198,000원~~ → 148,000원

행사기간 | 2021.08.20. ~ 09.20.까지

이보다 더 좋은 효도 선물은 없습니다~



1 BOX
(2개월분 60포)

자연과생명연구소

080-374-5046

광주북구서하로254